

국제산업(주) 발명특허대전 은상 수상



12월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서울 COEX 태평양홀에서 개최된 2006년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서 국제산업(주)가 은상을 수상했다.

12월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서울 COEX 태평양홀에서 개최된 2006년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서 국제산업(주)가 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은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 행사로 기계금속과 전기전자, 섬유화학 등 8개 분야의 신기술 제

누수해결 토양오염 방지 등 하수관 신기술 인정 제11회 경기중소기업대상 기술혁신분야 표창

품을 발굴해 포상하고 우수기술의 유통증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2006년 발명특허대전에서 섬유화학분야 은상을 수상한 국제산업(주)은 '무접합 폴리에틸렌 스파이럴 파이프'라는 신기술을 출품해 우수상을 인정받았다.

무접합 폴리에틸렌 스파이럴 파이프는 하수관의 고질적인 누수현상을 방지함으로써 획기적으로 토양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 하수관에 비해 3~7배까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부러짐이나 파손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수도관이음방식을 적용, 시공이 간편하고 시공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어 가격경쟁력에서 우수성이 입증됐다.

이 제품의 용도는 하수관 사용은 물론 주거지 및 단체생활지 오수와 우수관, 공장·축산·골프장·오폐수관, 하수·폐수종말처리장 차집관, 농·공업용수의 배수 및 송

수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 150여개 업체가 생산하는 폴리에틸렌 하수관은 프로파일을 나선형으로 접합해 하수관의 구조상 연결시공이 까다롭고 시공이 불완전함은 물론 고질적인 하수 누설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제산업(주)에서 발명한 무접합 폴리에틸렌 하수관은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 시공성, 시공후 하자발생, 내구성이 기존 PE하수관보다 우수할 뿐만 아니라 가격도 낮아 매우 경제적이다.

조복현 대표이사는 "무접합 폴리에틸렌 스파이럴 파이프는 기존 하수관처럼 접합하지 않고 원통의 다이싱형태로 동시에 수도관처럼 매끈하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소개했다.

국제산업(주)은 지난 10일 경기중소기업청이 주관해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경기중소기업대상' 시상식에서 기술혁신분야 표창장을 수상함으로써 하수관 분야의 독보

적인 존재임을 입증했다.

경기중소기업대상 시상에서 국제산업(주)은 무접합 폴리에틸렌 스파이럴 파이프 하수관을 개발해 과학기술부로부터 신기술 인증 K마크를 획득하고 산업자원부 NEP 인증으로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등록됐다. 또 한국발명진흥회가 기술혁신 전략과제로 선정했던 작년까지 폴리에틸렌 3중 하수관 성형장치를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하고 하수관 누수를 제로화 기술이 인정받았다.

1983년 PE하수관 전문업체로 설립된 국제산업(주)은 99년 명칭을 변경한 후 법인으로 전환했다. 국제산업(주)은 95년부터 산업재산권에 관심을 두고 연구한 결과 95년 실용신안출원한 이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5년동안 출원 28건(특허 24건, 실용 1건, 상표 3건)을 출원해 25건(특허 18건, 실용 5건, 디자인 1건, 상표 1건)의 실적을 올린바 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 낙농가 유가공 교육 인기

여성낙농인 대상 치즈제조 교육 실시

포천시가 낙농가의 일여유 해 소와 유가공 기술 보급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가보급형 유가공실'을 설치하고 최근 여성 낙농인을 대상으로 치즈제조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축산연구소 정석근 박사가 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치즈 제조원리에 관한 강의와 제조 실습교육이 이뤄져 교육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포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유가공실을 연중 개방하고 다양한 유가공

기술을 확대 보급하는 한편, 향후 관광지를 연계한 체험목장을 육성해 낙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 내 학교와 연계해 유가공실을 학생 체험학습의 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아울러 관심 있는 낙농인들을 대상으로 '유가공연구회'를 조직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활동을 통해 고품질의 유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는 낙농가의 일여유 해 소와 유가공 기술보급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농가보급형 유가공실에서 여성 낙농인을 대상으로 치즈제조 교육을 실시했다.

재테크 10

생각 없이 가입한 보험, 세금 되어 돌아온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속내도 과언이 아니다. 어찌까지 멀정했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생을 달리 할 수도 있고, 늘 건강하게만 보이던 이가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 나만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지만 그게 내 바람대로 되는 것인가 말이다. 만일 나에게 이러한 불행이 닥친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 들일 것이다. 나의 부재로 인해 겪게 될 고통, 그리고 병원비, 치료비를 감당하느라 어려워질 집안 살림살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보험이다.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이 너무 복잡하여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 보지 않은 채 가입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 경우 보험금을

탈 때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일이 생긴다. 이를 피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짚어 본다.

보험과 관련된 세금을 알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한다.

우선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피보험자"는 사고발생의 객체, 즉 보험의 목적이 되는 자를 말하고 "수익자"란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다. 이 세 가지의 관계에 따라 보험관련 세금이 정해지는데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매 달 보험금 내는 사람)와 보험수익자(만기 때 보험금 타는 사람)가 같아야 세금이 없다.

예를 들어 20년 만기, 2억원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만기가 되면 보험사에서는 자동적으로 국제청에 보험료 지급사실을 신고하게 되어있다. 이 때

보험료 실제 납입자와 수령인이 다를 경우 세금(증여세)을 내야 한다. 이 때 세금이 무려 2천400만원이 되기도 한다(MBC 경제야 놀자 '박경림 편'에서 소개)

또한 보험계약서 상에 계약자(자녀)-피보험자(아버지)-수익자(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가 흔한데 "자녀의 돈을 자녀가 받기" 때문에 세금문제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만일 계약자 명의만 자녀였고, 자녀가 미성년자, 또는 학생이어서 소득이 없었다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중신 보험의 경우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였던 남편이 사망했다면 받게 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러면 세금을 피해 가는 방법은?

자녀를 위해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하더라도 자녀가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는 피보험자만 자

녀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부모로 해야 한다. 또는 자녀가 미성년자여서 소득이 없다면 부모가 일정금액을 증여(신고 및 납부)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면 나중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중신보험에 있어서는 부인이 소득이 있다면 부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피보험자만 남편의 이름으로 하면 남편 사망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오늘 당장 자신이 가입한 보험 증권을 꺼내놓고 보험권리 관계를 살펴보자. 보험상품의 계약자와 수익자는 대부분 변경이 가능하므로 의문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로 문의하여 수정해 놓도록 하자.



무료상담
한경희 컨설턴트
011-9030-7917

탐방 우리 지역의 사업소 11 제비표 페인트 원일산업

자연을 생각하는 제비표 페인트 대리점



대표 강경남

건설화학공업(주) 제비표 페인트는 인간과 자연을 생각하는 친환경 페인트를 생산,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수많은 대리점에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굴지회사다.

또한 오랜 전통과 그동안 다져온 신뢰,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향해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정직한 기업 이미지로 타 업체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소비자의 만족'을 기업이념으로 삼고 건축용, 공업용, 목공용, 분체 도료, 플라스틱용, 선박 중방식, 자동차 보수용, 자동차 색상, 특수 도료,

역과 인근 지역인 진접을 주무대로 친환경 페인트를 공급하며 인정받는 대리점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대리점 원일산업이 이처럼 많은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는 이유는 강 대표의 성실함과 힘 없는 노력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5년 이상 몸 담았던 건축도료분야에서의 경력과 그동안 쌓아온 주위의 인맥이 강 대표의 사업에 활기를 넣어주고 있다고 한다.

일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강 대표는 별도의 영업직원 없이 직접 영업활동을 하다가보면 여러 가지 난제에 부딪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제비표 페인트의 브랜드와 질적인 면에서 우수함을 인정하면서도 기존의 거대처, 가격조건 등 많은 사항들이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난제 등을 분사와 타협해 거래처의 현실에 맞게 공급하며 거래처들에게는 질 좋은 제품을 적절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는 강 대표는 "제비표 페인트의 우수성은 많은 고객들이 알고 있다. 분사의 적극적인 연구와 끈질긴 노력으로 탄생되는 제품은 세계

자연을 먼저 생각하는 친환경 페인트 세계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우수한 제품

가정용 도료 등을 생산하고 있다. 여기에 페인트, 합성수지, 접착제와 같은 정밀 화학 분야, 복합소재 및 건축자재를 비롯한 종합 건설분야로 조선업, 문구업, 건강식품, 정보통신 분야에 이르기까지 항상 소비자의 입장에 서서 제품을 생산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인정받고 있는 업체다.

이러한 건설화학공업(주)의 후광을 뒤로 한 채 지난 1월에 개점한 제비표 페인트 대리점 원일산업(포천시 나촌면 읍내리 521-3, 대표 강경남)은 고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페인트, 신나, 본드, 붓, 테이프 등 인테리어에 필요한 자재를 판매하며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

현재 제비표 페인트 대리점 원일산업은 이 지

어느 시장에서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며 "이번에 출시된 환경 친화형 만능 프라이머, 수용성 반광투명 온돌마루재 도장용, 친환경 수용성 외부 목재용 등 자연과 함께 하는 제품을 출시했다"고 제비표 페인트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다.

제비표 페인트의 제비는 부와 행운을 상징하는 길조라고 한다. 제비표 페인트 대리점 원일산업이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모범업체로 이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대리점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문의 Tel 031)533-8407, Hp 010)9566-8408
정병길 기자 jpk61@paran.com



건설화학공업(주) 제비표 페인트는 인간과 자연을 생각하는 친환경 페인트를 생산,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수많은 대리점에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굴지회사다.

사제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가입 및 휴대전화번호 등 등록 안내

금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06년12월부터 2006년11월까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발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카드번호 등을 소속회사 등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전까지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등록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등록요령 붙임 참조)

※ 본인 및 합산공제대상 배우자·직계 존비속의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총 급여의 15% 초과분의 15%를 소득공제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발급 받은 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됨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가족들의 경우에도 각자 별도로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각종 카드번호 등을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연말 정산 서류에 현금영수증 사용 분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소속 회사 등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전까지 등록해야 함.

(발급시 본인확인수단)·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각종 카드(현금영수증카드, 신용·직불, 적립식카드 등)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록

(연말정산 소득공제)·본인(주민등록번호)과 휴대전화번호, 각종 카드 등이 서로 연계되어 사용 금액 확인 의정부세무서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산업안전사고 예방

석분제거 작업중 컨베이어 벨트와 드럼사이 협착

▲재해발생 개요

골재채취 작업장에서 파쇄기 골재 이송용 컨베이어 하단에서 삼을 이용하여 석분제거 작업중 컨베이어 벨트와 드럼사이에서 삼과 작업복이 눌러 질식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가. 컨베이어 청소 등의 운전정지 미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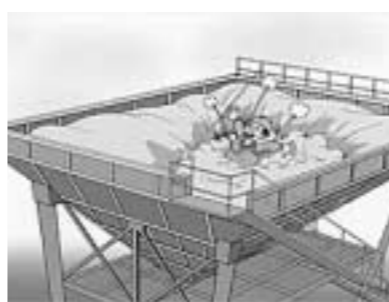
컨베이어 청소 등의 작업시에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가동중 인 컨베이어에서 석분작업을 실시하여 협착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나. 회전축 등에 방호를 미실시

컨베이어벨트 롤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또는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하였음.

▲중증재해 예방대책

가. 컨베이어 청소 작업시 운전정지 실시



재해발생상황도

컨베이어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회전축 등에 방호를 설치 컨베이어벨트 롤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또는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국민연금 Q&A

연금 개선책에 대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불만인 이유는?

노동계 - 부유세 신설 등으로 보험료 낮추기 가능 주장 사용자 - 절반씩 내는 부분 커져서 반대

장기적인 국민연금제정의 불안정은 현행 저부담·고급여 체계에 기인한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면 언젠가는 더 이상 버틸 재간 없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는 부담은 높이고 급여는 낮추는 쪽으로 개선책을 마련했다.

그런데 급여를 낮추는 것에 대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노동단체들은 현재 60%인 연금지급률을 더 낮추면 노후생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 기본취지가 무색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를 주장대로 연금지급수준을 현재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거나, 자녀 세대에 게 과도한 부담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부유세 신설, 저소득층에 대한 국고 지원, 재정추계기간 및 출산율 등 재정추계에 사용된 가정들에 대한 재검토 등을 통해 보험료 수준을 많이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급여자급률을 낮추는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돼 가는 추세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왜 불만인가? 사용자들은 보험료를 높인다는 데서 문제를 제기한다.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더 삭감해서라도 보험료 인상은 막아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 보험료를 올리면 보험료의 절반을 내야하는 사업장 부담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연금지급수준을 현재의 60%에서 최저 50%로 조정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험율의 상향조정은 불가피하다. 또 연금지급수준을 지나치게 하향조정하면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기능조차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냥 내릴 수만도 없는 실정이다.

한편 개정안을 담당 시행해도 보험료는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서서히 올라간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 031-544-8700